

III. 政策 課題

1. 北美關係 進展에 따른 南北關係 展望

- (背景) 작년 말부터 급속히 이루어진 北美關係의 改善은 금년 들어서도 經濟 分野를 중심으로 계속 擴散되고 있음
- (懸案) 南北關係는 남한 측의 강한 改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‘聯美 反南’ 정책으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, 이에 미국과 남한內에서 北美關係-南北關係 連繫 주장이 대두됨
- (展望) 南北關係와는 상관없이 北美關係의 改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나,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결국 南北關係에도 轉機가 마련될 전망이다
- (提言)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지나친 對美 依存을 止揚하고, 우리가 가진 지렛대(즉, 경수로 지원자금 부담)의 積極 活用이 필요함

○ (背景) 北美關係의 持續的인 改善

- 작년 말부터 北美 關係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어 왔음
 - 작년 11월 9일, 양측은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합의함
 - 작년 11월 11일, 美上院議員 2名이 美군용기를 이용하여 평양 방문함
 - 작년 12월 말, 美軍 헬기 조종사 송환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됨
- 양국간 화해 무드는 금년 들어서 경제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
 - 작년말 이미 북한영공 개방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북한은 금년 1월 9일 미국産 商品の 반입과 미국 무역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
 -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기업의 訪北 허용과 미국內 북한자산 동결조치의 해제에 이어, 금년 1월 20일에는 통신·정보, 금융거래, 무역 등의 분야에 있어서 對북한 經濟制裁의 부분 완화를 발표함
- 이러한 북미관계 개선은 제네바 합의의 일정에 맞추어진 것으로, 냉전 종식 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환경 및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

○ (懸案) 南北關係의 교착과 北美關係-南北關係 連繫 주장의 대두

- 북미관계 개선과는 대조적으로,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계속하고 있음
 - 남한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8일 「남북경협활성화조치」 등을 통해 經協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改善의 의지를 강력히 보인 바 있음
 - 한편, 북한은 소위 ‘聯美反南’(美國과 聯合, 南韓에는 反對)전략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전념하며, 김일성 조문 거부에 대한 사죄, 국가보안법 폐지, 未轉向 장기 수 송환 등의 前提 조건을 내세우며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
- 이에 미국과 한국內 保守세력을 중심으로,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連繫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

- 美上院 에너지위원장인 머코스키 의원은 지난 1월 19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, 美행정부도 크리스토퍼, 텔벗, 허버드 등 국무부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남북대화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함을 수차례 천명함
- 남한內에서도 북미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, 공노명 외무장관은 2월 6일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北美間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 개시의 連繫를 요구한 바 있음
- 최근 미국과 남한은 對北 압력수단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논의함

○ (展望) 北美관계 改善은 당분간 持續, 南北관계의 轉機는 경수로 문제에서

- 남북대화의 進展과는 상관없이 北美관계의 改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미국 정부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나, 이는 남한內 여론 무마用的 성격이 강함
 - 예정대로 금년 4~6월경 양국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음
- 결국 북미관계의 최대 걸림돌은 경수로 지원 문제로서,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도 커다란 轉機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
 - 4월말 예정인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에 앞서 최대 쟁점은 '韓國型'의 채택 여부인데, 이 문제에 관한 北美間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
 - 미국으로서도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할 남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, 결국 한국형이 묵시적으로라도 양해될 것으로 보임
-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再開될 가능성이 높음
 - 이미 북한은 비록 정치 공세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하나, 政黨間 대화나 평화축전 참관 허용 등 남한 측에 여러 가지 제의를 하고 있음
 -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南北經協의 궁극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, 북한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구실로 남북대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

○ (提言) 南北관계 改善을 위한 지나친 對美 依存은 지양해야

-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등에 매달린 풀이나, 이는 모양도 좋지 않을 뿐더러 별 효과도 없을 듯함
 -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상 美國이 우리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北美관계 개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
 - 결국 북한의 대화 참여는 남한과 미국의 '후속수단 없는' 강요에 의해서보다는,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북한지도부의 '대화 필요성 인식'에 의해 결정될 것임
- 따라서, 정부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의 지렛대(즉, 경수로 지원자금 부담)를 십분 이용, '한국형'(명시적 혹은 묵시적) 경수로 채택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
 -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며,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남북대화과 관계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임

(김 욱)